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6.06.24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호라이즌 유럽 신규 준회원국 참여 현황은?(6.23)

- 현재 뉴질랜드, 캐나다, 한국, 일본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와는 협상을 진행 중인 반면 싱가포르와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
- 인구 대비 참여 실적이 가장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로, 인구 100만 명당 6.3건의 과제에 참여해 일본보다 20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
- 일본과 한국은 제조업과 전자산업 기반이 강한 만큼 디지털, 산업기술, 우주 분야 과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

○ DG RTD, 협력 연구가 경쟁력 논리에 종속될 가능성에 관해 경고(6.22)

- 연구·혁신총국(DG RTD) 내부에서는 차기 ECF 운영이 연구 정책보다 산업·시장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
- 연구·혁신총국은 2026년 상반기 실시된 ECF 시범 워크프로그램 작성 과정에 대해 ▲체계적인 우선순위 설정 부재, ▲일방적 의사결정, ▲부처 간 조정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
- 이에 연구·혁신총국은 현재의 비공식적·하향식 운영 방식이 최적이 아니라는 평가와 함께 보다 명확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요구

○ ERC Advanced Grant, 영국 기관·미국 연구자 약진(6.23)

- 유럽연구위원회(ERC)가 발표한 2025년 Advanced Grant 선정 결과에서 영국 연구 기관과 미국 연구자들이 두드러진 성과를 거둠
- 연구는 EU 회원국 및 준회원국 24개국의 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, 선정된 연구자들은 앞으로 5년간 연구를 수행하게 됨
- 한편 2026년 ERC Advanced Grant 공모는 현재 진행 중이며, 신청 마감일은 2026년 8월 27일임

○ (기타) ▲집행위 자문관, FP10-ECF '패스트트랙' 도입 가능성에 긍정적 평가(6.22) ▲EU 극지 연구, 호라이즌 유럽에서 존재감 약화(6.23) ▲프랑스, 신규 혁신기관 설립 추진 검토 중(6.18)